

고창군, 레저스포츠 체험 관광도시 만든다

‘할매바위 클라이밍’ 지역특화 관광활성화 사업 최종 선정 패러글라이딩·산악자전거 한 곳서 즐기는 연계 상품 개발



할매바위 클라이밍

“아찔한 할매바위 위에서 맞는 선운산 바람의 상쾌함이 매력적이지요.”

고창군이 명품 레저스포츠 육성과 지역관광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0 지역특화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에 ‘높을고창 할매바위 클라이밍 체험 및 투어’가 최종 선정됐다.

고창군은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자연암벽 클라이밍을 주력 아이템으로, 방장산 패러글라이딩, 석정 MTB(산악자전거)파크, 구시포 명사십리해변에서 즐기는 짜릿한 승마 체험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높이 60m, 폭 50m에 달하는 아산면 계산리 할매바위는 수직벽과 오버행(수직 이상의 경사도를 가진 바위의 한 부분)을 이루면서도 큼직한 홀드(돌맹이 등 잡을 수 있는 부분)와 잘 발달된 포켓홀드(흡이 있는 부분) 등이 있어 클

라이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있다.

등반 거리도 짧은 편으로 쉽게 오르내릴 수 있으며 난이도 역시 초·중급부터 전문가 수준까지 다양해 자기 수준에 맞는 루트를 등반할 수 있다.

고창군은 상반기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하반기에는 팸투어 등을 진행해 전국 레저인들을 고창으로 끌어모을 예정이다.

또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지역 내 종목별 협회, 스포츠마케팅 민관추진위원회 등과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교통, 먹거리, 숙박 등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레저스포츠 참여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체험 중심의 관광 트렌드에 맞춰 명품 레저스포츠 관광상품을 개발해 지역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석정 MTB파크



방장산 패러글라이딩

“장난감 안심 대여하세요”

군산시 아이맘스 카페
드라이빙 스루&워킹 스루 서비스

“코로나19로 집안에만 갇혀 아이키우기 힘들죠. 장난감을 안심하게 사용할 수 드라이빙 스루로 빌려드립니다.”

영유아와 부모의 쉼터인 ‘군산시 아이맘스카페’가 드라이빙 스루&워킹 스루 방식으로 장난감 안심대여 서비스를 실시해 엄마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 아이맘스카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드라이빙 스루&워킹 스루 방식의 장난감 안심 대여 서비스를 13일부터 시행한다.

아이맘스카페는 코로나19로 임시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오랫동안 가정에 머무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활동 경험 제공으로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고,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장난감 안심 대여 예약제’를 임시 휴관 종료 때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장난감 안심 대여 서비스는 이용자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오전 10~12시(1명), 오후 2~6시(2명)로 제한해 주중(월~금)에만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전화(063-445-7860)를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하다. 300여종의 장난감을 군산시 드림스타트 홈페이지(<https://www.dreamstart.go.kr/gunsan/>) 공지사항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사과·복숭아 수확용 고소작업차
순창군, 재배농가 8곳 구매비 지원

순창군은 최근 사과 및 복숭아 재배 농가 8곳에 과수 수확용 고소작업차 구매비를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과수 농가들은 사다리를 들고 다니며 과수 관리와 수확 작업을 해야 했지만, 이번 고소작업차 지원으로 전정작과 적화, 봉지 작업, 수확 등 과수원 관리 작업에 다양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조작이 용이해 노동력 절감 및 작업 능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어 군은 향후 수요조사를 거쳐 매년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순창군은 저온저장고와 보행형 관리기, 스마트팜 하우스, 시설원예 현대화지원 등 총 32개 사업에 22억원, 고추·논콩 생산 및 유통장려금 20억원 등 총 33개 사업에 총 42억원을 지원해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반 확충에 집중하고 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설계는 꼼꼼히·시공은 튼튼히·예산은 적절히

정읍시, 사전설계심사로 13억 예산 절감... 현장기동감찰로 부실시공 근절

정읍시가 설계는 꼼꼼하게, 시공은 튼튼하게 하면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사전 설계심사’와 ‘건설공사 현장기동감찰’을 강화하고 나섰다.

업무처리의 적정성과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현장 부실시공을 뿌리 뽑아 시민불편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13일 정읍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동안 시가 발주하는 사전설계심사대상 799개 사업에 대해 예산집행낭비 요인을 사전에 심사해 13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사전설계심사제도’는 사업 발주 전 사업의 타당성, 현장 여건에 따른 적절한 시공방법, 공사비 과다계상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그동안 도급예정액 11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해 사업 시행 전 사전설계심사를 실시했다.

정읍시는 또 중·대규모 사업장 83개소에 대한 기

동 감찰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성과를 얻었다.

‘건설공사 현장기동감찰제도’는 건설공사 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을 막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정읍시가 지난 2019년 조직개편을 통해 기술감사팀을 신설,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현장기동감찰은 설계도와 시공이 다른가를 점검하고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사항의 유무에 대해 수시로 점검했다. 현장기동감찰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 추진 애로사항은 컨설팅을 통해 신속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적정·견실시공을 유도하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면밀한 사전설계심사와 현장위주 지도감찰 실시로 청렴 정읍을 만들겠다”며 “사전설계 심의과정부터 준공까지 관리감독을 강화해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펴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기술감사팀 관계자가 한 공사현장에 기동감찰을 나가 설계도와 실제 시공과의 차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